

망한 농촌테마공원에 “방문객 많다”

감사원 ‘농산촌 개발 등 농산촌 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전남 화순·강원 고성 거짓보고...업무 철저·관련자 주의 요구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비 수십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농촌테마공원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 보고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촌 개발 등 농산촌 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농촌테마공원 운영 실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주의요구를 하는 등 19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2006년부터

터 매년 4~5개 시·군 지역을 선정해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지원, 올해 7월 현재 총 49개를 조성 완료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 결과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2013년 전남 화순군에 조성한 A 농촌테마공원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팜스테이, 약초체험 등을 위한 방문객 수용 실적이 없는 등 전체 시설이 운영 중단돼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원 내 정자와 팜스테이 시설 등 일부 시설을 특정한 인원이 텐트 등을 설치해 무단 점유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화순군은 2018년 농촌테마공원 방문객이 없었는데도 1만 8422명이 방문한 것으로 전남도 및 농식품부에 거짓 보고했다.

역시 50억원을 들여 조성한 강원 고성군의 B 농촌테마공원도 백두대간 생태체험 전시관 및 온실에 전시물·식물 없이 빈공간으로 두고 있는 등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고성군은 2018년 상반기 방문객 4000명에 수익이 2400만원인 것으로 강원도와 농식품부에 허위 보고했다.



“친구아우리 졸업이야” 3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가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제27회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친구의 모자를 고쳐 씌워주고 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49개 농촌테마공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농촌테마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화순군수와 고성군수에게는 이번에 적발된 농촌테마공원의 운영 실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따라 시·군이 공모·신청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신규 선정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선정 기준을 어긴 사실도 적발했다.

이는 농산어촌지역의 주민 소득과 생활 수준을 높이고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만 총 9256억원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2017년 1월 일반지구(60억원)에 비해 예산 소요가 큰 통합(120억원)·선도(80억원)지구는 현장·종합 검토를 거쳐 시·도별 3개 지구 이하로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지구로 신청한 영덕읍 등 4개 지구를 현장·종합 검토 없이 선도지구로 변경해 당초 한도(3개)보다 2개 지구를 초과 선정했다.

아울러 통합·선도지구 종합 검토시 구체적 기준없이 임의로 선정하는 바람에 현장 점검 결과 ‘하’ 등급은 선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2020년 신규사업 선정시 현장 점검에서 ‘하’ 등급으로 평가된 10개 지구를 통합·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규 사업의 선정 기준에 어긋나게 사업을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최순=박순철 기자

여수해경, 설명절 전후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밀수 등 단속

내일부터 두달간

여수해양경찰서는 1월 1일부터 두달간 명절 특수를 노린 농수산물 밀수나 부정 유통·판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명절 특수를 노린 국내 소비 품목 밀수와 부정수입 후 유통·판매 △국내 수산물 품귀(명태, 오징어 등)로 가격 급등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수입기준을 위반하거나 국내유통이 금지된 수산물을 유

통·판매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범죄 등이다.

특히 국내 오징어 품귀현상으로 시중 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산 냉동 오징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유명 중국음식점 등에 공급한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국 수입금지 축산품과 정부지정 수입금지 국가의 수산물 밀수·유통·판매 행위도 엄정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반의 입체적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식품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 단신 ◆

동아리 활동왔다 비닐하우스에 불 지른 대학생

창고로 쓰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군(19)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5시30분쯤 광주 남구 양과동 B씨(49)의 비닐하우스에서 짚단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비닐하우스와 트랙터 등이 일부 불에 탔다.

A군은 대학 동아리 활동을 위해 인근을 찾았고, 검거 당시 술냄새를 풍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기운에 기억이...” 건강보조식품 훔친 40대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건강보조식품 매장에서 상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7·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7분쯤 광주 동구의 한 건강보조식품 매장에서 오메가3 등 시가 12만3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울증 약을 꾸준히 복용해왔다”며 “당시에도 우울증 약을 복용했는데 (물건을 훔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매장에서도 물건을 훔치려다 검거돼 여죄가 드러났다.

“왜 공병 못 가져가게 해” 같은 아파트 주민 폭행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공병을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며 주민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씨(50·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B씨(33)가 공병을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비원이 공병을 담고 있는 A씨에게 “왜 아파트 공공재산에 손을 대느냐”고 나무라자 A씨가 “무슨 상관이느냐”며 욕설을 했고 이를 말리던 B씨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모두 해당 아파트 주민이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역에 불지르겠다” 방화 예고글 올린 30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오픈채팅방에 부평역에 지하철 방화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28일 오후 4시 30분쯤 “‘일본어를 사랑하는 모인’이라는 오픈채팅방에 한 참여자가 ‘부평역 지하철에 방화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부평지역 4개 지하철역에 차량 10여대와 경찰관 2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또 SNS에 글을 올린 남성을 추적, 29일 오전 1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B씨(36)를 체포했다. 빌라에서 방화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다른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하는 한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